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에 대한 평가*

조 형 진**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신시대’의 모순론 평가 |
| II. 마오쩌둥의 모순론 | V. 결론 |
| III. 중국의 모순론 변천 과정 | |

주제어 : 주요 모순, 신시대, 19차 당대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I. 서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체제 경쟁을 강조한 마오쩌둥의 노선으로부터 벗어나 눈부신 성장을 성취했으나,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진핑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마오쩌둥 시기에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정책이 연역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개혁기에는 반대로 이데올로기가 경험적 사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빈번히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843).

** 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hjcho@inu.ac.kr)

뿐이다(Shambaugh 2008, pp. 104~106). 공산당을 권력 주체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이데올로기를 포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이데올로기는 정책 결정의 기준이자 정치적 유산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엘리트들 내부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면서도 이를 적절히 변형하면서 안정과 번영을 성취해 왔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회귀(意識形態的回歸)’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전의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하여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조영남 2012, pp. 236-244; Li 2016, pp. 371; Brown and Bērziņa-Čerenkova 2018).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신시대(新時代)’로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당의 지도사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다. 새로운 시대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는 주요 모순이었다.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라는 기존의 주요 모순이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회주의 이론에서 보자면, 모순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오쩌둥(毛澤東)부터 시작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명칭 하에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수정해 온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도 주요 모순은 혁명, 건설, 개혁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했으며, 노선, 방침, 정책의 기초였다(李忠傑 2017, p. 177).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하기 위해서 주요 모순의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해석을 보자면, 신시대로의 진입은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한 필연적 결과이자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변화한 필연적 결과이다. 또한 미래의 필연적 요구이다(中共中央宣傳部 2019, p. 14). 아울러 당연하게도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결정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劉靖北 2018). 그러나 중국 밖에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논리적으로 주

요 모순을 신시대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신시대는 모호한 개념이다(안치영 2018, p. 170).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초적인 계급 분석조차 결여된 피상적이고 형해화된 논리일 뿐이다(Lin 2019, p. 126). 이런 이유로 세계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모순이 대외적인 전략적 맥락에 국한되어 해석되기도 한다(유희복 2019).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모순 개념의 출발점인 마오쩌둥부터 시작하여 모순에 대한 논의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전환과 비교한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 공산당 집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역할을 모순 개념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II. 마오쩌둥의 모순론

1899년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제대로 된 이해와 활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 마르크스주의는 혁명론이 아니라, ‘역사의 경제학적 해석’을 강조하는 방법론으로 수용되었다. 국공합작을 통해 북양군벌을 타도하려던 1924~1927년의 ‘국민혁명(國民革命)’ 또는 ‘대혁명(大革命)’의 실패를 거치고 나서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혁명 이념으로 변화했다. 공산당의 급진화로 국민당과의 이념·노선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1927년 상하이에서 장제스의 공산당원 학살이 발생하고, 우한에서 왕징웨이(汪精衛)의 국민당 좌파가 공산당과 결별함으로써 1차 국공합작이 붕괴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급진화되었었고, 국공합작을 강요한 소련에 대해 실망하여 독자적인 이념과 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도식적이고 교조적이었다. 민족의 독립이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당 좌파와 달리 중국의 모순을 계급으로 규정하면서 마르크스의 이상적인 원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딜릭 2016). 오히려 국민당 좌파의 입장이 향후 변모된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유사해 보였다. 이는 국공합작이 비극적으로 붕

괴된 이후 국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감정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1931년 일본의 만주 침공과 만주국 수립, 뒤이은 내륙으로의 침략 확대와 1937년의 중일 전쟁의 발발로 이어지는 민족적 위기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공산당은 왕밍(王明)의 ‘좌경 모험주의’의 실패로 대장정에 내몰렸으며 그 와중에 1935년 쑨이회의(遵義會議)를 통해 마오쩌둥이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항일전선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당 정부에 대한 투쟁도 포기하지 않았던 중국 공산당의 입장도 서서히 변화했다. 1935년 코민테른이 왕밍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명의로 반파시스트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독촉하는 『8.1 선언(八一宣言)』을 내놓기도 했다(中共山西省委黨史研究室 2016, 76-85). 1936년 시안사변(西安事變)과 1937년 노구교(盧溝橋) 사건으로 시작된 중일전쟁으로 이른바 ‘항일 민족통일전선’이 본격화되었다. 마오쩌둥이 국민당에 대한 적대를 누그러뜨리고 2차 국공합작으로 돌아선 것은 전략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연안 시기에 형성된 철학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1937년 8월에 등장한 『모순론』은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마오쩌둥의 이론적 변화를 보여준다(Schram 1989, pp. 58-61). 그 중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잡한 사물의 발전과정에는 많은 모순이 있는데 반드시 그 중 한 가지가 주요한 모순이며 그것의 존재와 발전이 기타 모순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것에 영향을 준다(모택동 1992, p. 412).”¹⁾

1) 본 논문의 『모순론』 번역은 중국에서 출판된 조선어판을 우리 문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했다. 추가로 언급할 점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저술이 본격적으로 출판되면서 원본과 편집본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마오쩌둥을 중국 공산당의 독보적인 이론가로 치장하기 위해 『모순론』의 공식 집필 시기를 1937년으로 조작했으며, 실제로는 건국 이후에 편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937년에 저술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저술 연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통용되는 『모순론』은 1937년 판본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제목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이 『모순론』의 기원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시대에 이르는 중국의 모순론의 변화를 앞선 시기의 논리부터 파악하려는 것이기

“모순과 투쟁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즉 투쟁의 형태는 모순의 성격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어떤 모순은 공개적인 적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모순은 그렇지 않다. 사물의 구체적 발전에 의하여 어떤 모순은 본래 비적대적이었던 것이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하며 또 어떤 모순은 본래 적대적이던 것이 비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한다(모택동 1992, p. 429).”

이처럼 『모순론』은 주요 모순(主要矛盾)과 이후에 부차 모순(次要矛盾)으로 불리는 비주요 모순(非主要矛盾)을 구분했다. 또한 모순에 대한 태도와 해결 방법에 따라 적대적(對抗性) 모순과 비적대적(非對抗性) 모순을 나누었다. 항일이 주요 모순이자 적대적 모순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계급투쟁과 국민당에 대한 투쟁이 비적대적인 부차모순이 되면서 『모순론』은 국공합작과 전면적인 항일 통일전선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국민당과의 통일전선과 공산당의 생존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이론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이론에 따라 정세적 대응이 변화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모순론』의 출현을 전후하여 이론과 노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신단계론(論新階段)’으로 불리는, 1938년 옌안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의 정치보고에서 마오쩌둥은 국민당과 결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국민당이 영광의 역사에서 쏜원과 장제스라는 위대한 영수(領袖)를 갖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현재의 항일투쟁은 물론, 승리 이후의 정치체제에서도 국민당과 장제스의 우위를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馬克思主義中國化)’의 필요성을 제기했다(毛澤東 2011, pp. 573-654).

전면적인 국공합작으로의 전환은 소련의 전략에 부응하는 것이었지만, 『모순론』은 소련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몇 년 뒤 소련 언론은 같은 시기 저술된 마오쩌둥의 『실천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모순론』에 대해서는 모른

때문에 오히려 현재 인식되는 『모순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순론』의 저술 연도 논쟁과 판본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Night(1980, pp. 641-668)를 참조.

척했다. 소련의 태도는 『모순론』이 공식적인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이탈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Schram 1989, pp. 64-65). 이는 『모순론』이 마르크스주의의 원형과 소련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이론적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순론』의 이론적 이탈은 다음 내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모순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서 사물발전의 모든 과정에 존재하며 또 모든 과정에 시종 관통되어 있다(모택동 1992, 397).”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에서는 생산력이 주요한 것이며 이론과 실천과의 모순에서는 실천이 주요한 것이며 경제토대와 상부구조와의 모순에서는 경제토대가 주요한 것으로서 그 위치는 결코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해가 아니라 기계적 유물론의 견해이다. 물론 생산력, 실천, 경제토대가 일반적으로는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또 생산관계, 이론, 상부구조 등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반전하여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생산관계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이 발전할 수 없을 때에는 생산관계의 변경이 주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모택동 1992, p. 418).”

모순이 없는 곳이 없다. 즉 모순은 편재(ubiquity)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순 중에서 주요 모순을 찾아내고, 모순이 적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모순은 다른 모순들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고, 발전의 다음 단계로 사회를 진보시킬 것이다. 주요 모순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을 구별하며, 따라서 적과 인민을 구분하는 것이다(Starr 1979, pp. 35-38, 74). 이런 점에서 마오쩌둥의 모순론은 나름의 논리를 통해 일관되게 서술될 수 있다. 모순이 어디에나 편재하기 때문에 모순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모순은 항상 변동하는 것이다. 모순이 고정되어 있다면 모순이 편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또한 편재하고 변동하는 모순들에 모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모순을 가려내고 모순의 적

대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순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모순의 편재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없던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모순과 적대를 거의 동일시했지만, 레닌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비적대적인 모순이 가능하다고 봤다. 스탈린도 이러한 관점을 계승했다(Rojas 2019, p. 43). 그러나 마오의 모순론은 사회 내부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우선성을 두던 정통에서 벗어나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회주의 사회를 비롯한 어디에서도 주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모순의 위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변모해 갔다. 또한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양질전화의 법칙도 질적 변화가 양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형태로 변환된다. 모순의 편재성과 변동성을 끝까지 밀어붙여 정통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요 모순은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조건에 따라 경제적 하부구조의 상부구조에 대한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모순론』은 모순의 변동성 자체가 항존한다는 입장이 되어갔다. 『모순론』이 아니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과거처럼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매달려 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정세에 따라 『모순론』 이전에 공산당은 이미 독립이라는 민족적 목표를 우선시했다. 새로운 국공합작을 중용했던 소련과 스탈린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모순론』은 마오쩌둥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고가 집약되어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이론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모순론』은 마오쩌둥이 임시변통의 전술과 책략만을 가진 혁명가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논리적 이론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줬다(Schram 1989, pp. 84, 93).

그러나 『모순론』에서 전개된 모순의 편재성과 변동성으로 주요 모순은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년도 지나지 않아 붕괴한 국공합작과 전면적인 국민당과의 내전도 쉽게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모순론』의 모순 개념 자체가 정세에 따른 전략 수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손쉽게 변용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순론』이 마오쩌둥의 저술 중 가장 추상화된 이론적 사유를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마오쩌둥 사상이 가지는 실천적, 전술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Dirlik 1996, pp. 129-130).

III. 중국의 모순론 변천 과정

편재성과 변동성에서 비롯된 마오쩌둥의 모순론이 가지는 실천적이고 전술적인 임의성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모순 개념의 술한 변동에서 잘 드러난다. 마오쩌둥은 정세의 필요성에 따라 주요 모순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다.

1. 1956년 8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전환

중국 공산당은 1956년 8차 당대회에서 자산계급의 민주혁명이 완성되고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쟁취되었다고 선언했다. 자산계급의 민주혁명으로 과거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이었던 소위 ‘세 개의 큰 산(三座大山)’, 즉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가 해소되었으며,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국주의라는 대외적 모순과 함께 국내의 주요 모순인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도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건국 이후의 과도기를 지나 이른바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주요 모순을 변경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때였다. 지난 백 년 동안 중국의 경제·문화가 세계의 선진적 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낙후한 농업국에서 선진적인 공업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민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생산력을 속박하던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국내의 주요 모순은 ‘인민의 선진 공업국 건설에 대한 요구와 낙후한 농업국이라는 현실 사이의 모순’이며, 인민의 경제·문화의 신속한 발전에 대한 수요와 현재의 경제·문화가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사이의 모순’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순의 실질은 사회주의 제도가 이미 건설된 상황 하에서 선진 사회주의 제

도와 낙후한 사회생산력 간의 모순'으로 규정되었다.²⁾ 핵심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이 더 이상 주요 모순이 아니며, 공업입국을 목표로 생산력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요 모순을 비롯한 중국의 모순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거나 잊힌 내용이 존재한다. 주요 모순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모순론』에서도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내부의 각 계급 간의 모순은 이차적이고 종속적이 되며,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반대 간의 국제적 모순이 주요 모순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모택동 1992, p. 413). 8차 당대회에서도 주요 모순의 앞에는 '중국 사회의(中國社會中的)', '국내의(國內的)'라는 형용사가 붙는다. 또한 8차 당대회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역량이 커지고 있으며,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운동도 발전하고 있다.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서 평화와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 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정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세계의 항구적 평화가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봤다. 국내·외 모두의 정세 변화로 인해 주요 모순의 내용이 변하게 된 것이다. 이후부터 주요 모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국내의 모순을 의미하게 되었지만, 그 뒤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1957년 '인민 내부의 모순'과 계급투쟁으로의 회귀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했다. 이어서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반소 봉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11월 정치국 회의의 토론을 정리한 「무산계급 독재의 역사경험 재론(再論無產階級專政的歷史經驗)」이 1956년 12월 29일자 『인민일보』에 게재되었다. 급변하는 시

2) 이 절에서 언급되는 8차 당대회에 대한 내용은 1956년 9월 27일, 「중국 공산당 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 관한 결의(中國共產黨第八次全國代表大會關於政治報告的決議)」에서 인용했다.

국과 관련하여 스탈린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스탈린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이미 인민 내부의 모순(人民内部的矛盾)과 적아모순(敵我矛盾)의 개념이 등장했다. 스탈린이 두 모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적에게 사용해야 할 방식으로 인민을 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탈린의 오류와 사회주의 국가의 반소 봉기는 사회주의 체제 내에도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며, 공산당이 집권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마침 국내적으로도 소요사건이 증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이른바 ‘쌍백(雙百)’의 자유화 조치로 시작된 지식인들의 비판이 과도해지자, 마오쩌둥은 인민 내부의 모순에 대해서 폭력이 아닌 비판을 위주로 한 정풍운동(整風運動)을 개시하도록 했다(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02, pp. 422-427).

‘인민 내부의 모순’ 개념은 마오쩌둥이 1957년 2월 27일 최고국무회의의 11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여 6월 19일 『인민일보』에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를 게재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이미 정풍운동이 인민 내부의 모순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우파분자를 색출하는 적아 모순의 처리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게재된 문장도 마오쩌둥의 본래 발언과 다르게 편집되었고, ‘인민 내부의 모순’ 개념도 달라졌다. ‘향초(香草)’와 ‘독초(毒草)’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행의 옳고 바름을 구별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정치표준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의 길과 공산당의 영도에 유리한지, 아니면 이를 버리고 약화시키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급투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되었다.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그리고 이들 간의 정치역량과 이데올로기 방면의 계급투쟁은 장기간 지속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심지어 때때로 격렬해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8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전환이 부정되었다. 이와 함께 반우파투쟁(反右派鬥爭)이 시작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좌’로 선회하게 되었다(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02, pp. 450-462; Rojas 2019, pp. 44-47).

애초의 ‘인민 내부의 모순’ 개념은 『모순론』의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의 구분과 유사하지만, 소련에서 시작된 국제 사회주의 정세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갑자기 등장했다. 본래 ‘쌍백’ 조치 등 공산당의 전향적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념이었으나, 정세의 변화와 함께 정반대의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사실 정세적 대응으로 갑자기 출현한 만큼 ‘인민 내부의 모순’이 마오쩌둥의 기존 모순 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념의 취지와 방향이 정반대로 변화하면서 모순 개념은 물론, ‘계급투쟁’과의 관계도 모호해졌다(馮務中·郭瑋 2013, pp. 48-52). 실제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에는 마오쩌둥 모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모순’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인민 내부의 모순’ 개념이 소련의 공식 이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관계가 균열될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 시기 중국은 아직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다. 8차 당대회에도 소련공산당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소련공산당의 공식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순이 해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탈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 8차 당대회에서 선언된 주요 모순의 전환이 소련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何敬文·李放 2014, pp. 26-27). ‘인민 내부의 모순’ 개념은 모순의 편재성에 기초한 마오쩌둥의 주요 모순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모순의 성격이 자본주의와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련의 공식 마르크스주의와의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내부의 모순’이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면서 생성되어 정세의 변화로 인해 의미가 전변되는 과정은 마오쩌둥의 모순 개념이 얼마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 내부의 모순’ 개념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은 애초의 의미와 유사하게 완화된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자주 사용되면서 ‘인민 내부의 모순’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용인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3. 계급 모순의 공식적인 복귀와 계속혁명

이미 계급 투쟁이 주요 모순으로 복귀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57년 9~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8기 3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회주의의 길과 자본주의의 길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1958년 5월 5일부터 23일까지 8차 당대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8차 당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정풍운동과 반우파투쟁을 거쳐 극대화된 좌익적 경향이 반영되어 1956년 8차 당대회의 주요한 결정들을 뒤집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1956년 저우언라이와 천윈(陳雲) 등이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불안정 요소에 대응하여 경제의 과속을 억제했던 ‘반모진(反冒進)’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뒤이어 중국은 전면적인 대약진으로 나아갔다(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02, pp. 480-489). 또한 주요 모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통해 1956년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류샤오치(劉少奇)는 회의 첫 날 「공작보고」에서 “정풍운동과 반우파투쟁의 경험이 다시 한 번 보여줬듯이 전체 과도시기, 즉 사회주의 사회 건설 이전에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투쟁, 사회주의의 길과 자본주의의 길의 투쟁이 시종 우리나라 내부의 주요 모순이다. 이 모순은 특정한 범위에서는 격렬하고 생사를 건 적아모순……”이라고 선언했다(劉少奇 1958).

이어서 문화대혁명의 와중에 개최된 1969년 9차 당대회의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은 ‘사회주의 사회는 상당히 장기적인 하나의 역사단계이다. 이 역사단계에는 시종 계급, 계급모순,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가지 길의 투쟁, 자본주의의 복귀 위험성,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의 전복과 침략의 위협이 존재한다. 이 모순은 마르크스주의의 부단한 혁명의 이론과 실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총강(總綱)에 담았다. 또한 1973년 10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이러한 모순은 무산계급 전제정 하의 계속혁명(繼續革命)의 이론과 실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로 수정되었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계급 투쟁이

주요 모순으로 더욱 강조되고, 마오쩌둥의 계속혁명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에서 보듯이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 견해는 문화대혁명의 지도이론인 ‘무산계급 전제정 하의 계속혁명(無產階級專政下繼續革命)’ 개념이 문화대혁명의 개시를 알린 1966년 「5.16 통지」, 1969년 9차 당대회 정치보고 등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마오쩌둥 사상의 궤도에서 이탈한 좌경적 오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혁명’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58년 1월의 「공작방법 60조(工作方法六十條)」에서 ‘부단한 혁명’과 ‘우리의 혁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我們的革命是一個接一個的)’라는 서술을 통해 이미 그 단초가 출현했었다(人民網 2018; Schram 1989, pp. 130-131). 1957년의 반우파투쟁은 8차 당대회에서 이미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던 혁명이 다시 출현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다. 마오쩌둥은 혁명과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물질적 기반이 아닌 ‘사상적 착취 계급’ 개념을 만들어 ‘계속혁명’을 제기함으로써 반우파투쟁을 정당화했다(안치영 2013, pp. 46-47). 이 과정에서 차차 ‘계속혁명’ 개념이 발전하여 문화대혁명의 논리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덩샤오핑을 비롯하여 개혁·개방을 이끈 많은 중국 지도자들이 반우파투쟁의 주도자이자 지지자였기 때문에 ‘좌경적 오류’인 계속혁명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탄생한 것이 되어야만 했다.

『모순론』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계속혁명은 마오쩌둥 사상의 이탈이기보다는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논리적 전개를 통해 쉽게 도출되는 개념이었다. 모순의 편재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모든 관계가 모순으로 해석되고 모순의 변동성을 통해 언제든지 부차모순이 주요모순으로, 인민 내부의 모순이 적아 모순과 계급투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혁명’은 모순의 편재성, 변동성이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으로 촉발된 정세적 필요에 따라 혁명의 편재성, 변동성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개혁·개방과 주요 모순의 변경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화궈펑(華國鋒)은 마오쩌둥의 유지를 계승하여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전제정 하의 계속혁명’을 지속한다고 선언했다. 덩샤오핑 일파는 1978년 이른바 진리표준토론을 통해 화궈펑의 ‘양개범시(兩個凡是)’를 폐기하고, 이어서 12월의 11기 3중전회를 통해 지도부로 복귀했다. 또한 복귀한 천원이 경제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는 통일되지 못한 채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1981년 6월 27일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이하 「역사 결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안치영 2013, pp. 223~226; 조영남 2016, pp. 353~404).³⁾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을 평가하기 위해 건국 이후의 공산당의 성과를 시대별로 구분했다. 1949~1956년 사회주의 개조 시기가 가장 위대한 시대로 평가되고, 1957~1966년 사회주의의 전면 건설 시기는 성과가 있으면서도 반우파 투쟁과 펑더화이(彭德懷) 숙청과 같은 일부 오류가 출몰했던 시기였다. 당연히 1966~1976년 문화대혁명의 시기는 혁명도 진보도 아니며, 린바오(林彪)와 4인방이라는 반혁명 집단에 의해 마오쩌둥의 오류가 전면화된 시기였다(조영남 2016, pp. 398~400).

이러한 시대 구분에서 보듯이 1956년 8차 당대회가 개혁·개방 이후 개혁파가 회귀해야할 정확한 노선이 되었다(안치영 2013, pp. 284~285). 덩샤오핑은 1982년 12차 당대회 개막사에서 “8차 당대회의 노선은 정확했다. 그러나 당시 당이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사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노선과 허다한 정확한 의견들이 실천 중에 견지될 수 없었다. 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많은 성취를 획득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좌절을 맞이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요 모순도 몇몇 단어만 변경되어 사실상 8차 당대회의 규정

3)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역사 결의’는 1945년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關於若幹歷史問題的決議)」로서 당의 ‘좌경적 오류’, ‘우경적 투항주의’를 비판하고 마오쩌둥 사상을 확립하였다.

으로 회귀했다.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이후, 즉 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던 1956년 이후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모순은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간의 모순’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과 국가의 공작 중점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변경되어야 하며, 사회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을 차츰차츰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계급투쟁이 이미 주요모순이 아니다’라고 선언되었다. 뒤이어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1982년 9월의 12차 당대회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당장」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주요 모순의 규정은 2017년까지 개혁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역사 결의」가 작성되고 결정되는 과정은 중국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구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덩샤오핑, 천원 등 최고지도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정치적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공산당의 공식 기구의 역할이 회복되었으며, 여러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의견, 간부들의 토론도 반영되었다(안치영 2013, pp. 256~266; 鄧力群 2012a, pp. 91~101).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려와 고민이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주요 모순을 수정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역사 결의」의 35절에는 계급투쟁이 주요 모순이 아니지만, 계급투쟁의 확대와 계급투쟁의 소멸이라는 두 관점을 모두 반대한다고 서술하였다(鄧力群 2012b, pp. 72~73). 계급투쟁을 모순으로 잔존시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주요 모순의 변동으로 사실상 계급투쟁을 소거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역사 결의」는 이론과 논리가 먼저 전개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정당화를 위해 주요 모순이 조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사 결의」 초안 작성의 책임자였던 후차오무와 함께 관련 실무를 책임졌던 덩리쥔(鄧力群)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978년 11기 3중 전회의 공보에서는 계급투쟁과 주요 모순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지만, 이미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한다는 주장이 사라졌으며, 업무의 중점이 경제건설로 이동했었다(鄧力群 2012b, p. 67). 「역사 결의」와 주요 모순의 변동은 이미 결정된 방침과 정책을 이론과 논리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추가로 8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변화에서도 그러했듯이 「역사 결의」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라는 국내적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역사 결의」는 대외적인 내용을 거의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건국 이후 32년의 열 가지 성과 중 마지막으로 외교적 성과를 언급한다. 여기에는 평화공존 5원칙과 함께 124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점과 국제연합의 회원과 상임이사국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⁴⁾ 중국은 1978년부터 마오쩌둥의 ‘전쟁과 혁명이 시대주제’라는 인식에서 천천히 벗어나 1984년 덩샤오핑이 공식적으로 ‘평화와 발전이 시대주제’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조영남 2009, p. 229). 「역사 결의」와 주요 모순의 변동은 이러한 ‘시대주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이를 추동하였다(龔育之 2012, pp. 226~229).

IV. ‘신시대’의 모순론 평가

1. 2017년 19차 당대회의 ‘신시대’ 선언과 주요 모순의 변경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에 이어 지도사상으로 당장에 명기했다. 당서기 시진핑이 행한 당 대회 보고는 중국이 이전과 다른 ‘신시대’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1949년 건국을 통한 신중국(新中國)의 수립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신시기(新時期)를 거쳐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건국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상까지 제시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모호하다.

주요 모순이 그나마 시대를 구획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되었다

4) 미중 수교 협정은 「역사 결의」에 앞서 1979년 1월 1일 이미 발효되었다.

(안치영 2018, pp. 169~170). 1981년 「역사 결의」에서 규정된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변경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성과로 중국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라는 목표에 곧 도달할 만큼 성장했다. 이제 인민들의 수요가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에서 높은 질적 수준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력 수준도 현저히 증가하여 생산력 자체가 아니라 발전의 불균등과 불충분을 해결해야 할 단계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동해야 한다. 앞서 봤듯이 1981년의 「역사 결의」는 1956년 이후의 모순을 다시 규정한 것이므로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에 대한 재규정은 61년만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시대라는 규정과 주요 모순의 변화가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현재의 역사단계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기본적인 국가상황(國情)과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상황과 현실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주요 모순을 변경했다는 점은 ‘신시대’ 규정이 명확한 이론적 논리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봤듯이 1981년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에 대한 사상적 통일과 이를 통한 화궈평 세력의 제거라는 정세적 대응의 산물이기는 했지만, 8차 당대회라는 당의 역사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개조’의 종결을 기준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요 모순의 전환을 도출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신시대’가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지,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안치영 2018, pp. 169~170; 전성홍 2018, pp. 11~14). ‘신시대’와 주요 모순의 전환은 시진핑 개인의 권력집중을 위한 도구일 뿐, 내용과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영성하게 치장된 선언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모순의 전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과정이 사실상 없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19차 당대회 보고와 「당장」 개정안의 작성 과정을 담은 이른바 ‘탄생기(誕生記)’들은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공식 절차를 설명할 뿐 이론적 배경과 논의는 담고 있지 않다. 주요 모순을 새롭게 정의할 시기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으나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견이 다양했으며, 시진핑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조사연구와 세심한 고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新華網 2017a; 2017b).

시진핑의 통치 이념을 지도 이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멀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시진핑 사상’을 위한 준비도 2016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용어는 당대회 시작 한 달 전해야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영남 2018, pp. 65~69; 2020, pp. 602~609).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주요 모순의 조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19차 당대회 이전에 시진핑 사상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는 전조가 뚜렷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에 견줄 수 있는 사전 작업이 없었으며, 뒷받침할 기초도 발견되지 않았다(Miller 2017, pp. 5-7). 주요 모순의 수정도 마찬가지다. 19차 당대회의 준비 과정은 이전의 일반적인 당대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안치영 2018, pp. 146-151). 물론 이는 중국 공산당이 핵심이 되는 내밀한 내용과 절차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시진핑 사상의 실현과 시진핑과 공산당으로의 권력 집중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적, 제도적 조치인 「당·국가 기구 개혁 심화 방안(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과 이에 대한 결정은 당대회 자체만큼이나 철저히 준비되었다.⁵⁾ 결정과 방안의 통과 이후에 공개된 기구 개혁의 준비 과정을 보자면, 시진핑이 이미 2015년에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회의에서 당과 국가 기구 개혁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018년 2월 중국 공산당 19기 3중전회에서 당·국가 기구 개혁의 심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문건 초안 작성조(起草組)를 설립하여 시진핑이 직접 조장을 맡았다. 이

5) 본 방안의 내용과 전체적인 공산당과 정부의 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조형진(2018)과 황태연(2019)을 참조.

보다 먼저 2017년 하반기에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改革辦)과 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編辦) 등이 조사연구에 대한 토론을 하고 10개 연구조를 구성하여 31개 지역과 71개 당정 부서로 가서 139명의 성부급(省部級) 주요 책임인사의 의견과 건의를 들었다. 657개 시·현의 1,197명의 당정 주요 인사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31개 성급 지역에서 조사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직접 좌담회를 개최했는데, 민주당파, 공상련, 무당파 인사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는 것도 포함했다(習近平 2018).

신시대의 이론적 근거인 주요 모순의 조정을 당대회와 기구 개혁의 과정과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주요 모순의 조정이 주로 이론적인 논리와 내용의 문제라면, 후자는 실제 제도를 바꾸는 절차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론과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주요 모순의 변동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구 개혁과 달리 구체적인 절차나 논리적 해석이 없다는 점은 주요 모순의 변동이 단지 신시대 선언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의적이고 도구적인 방편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1981년 「역사 결의」가 결정되는 과정과 주요 모순의 내용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도 비교된다. 이는 내용의 일관성과 이론의 정합성에 대한 다음의 검토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2. 19차 당대회 이전의 주요 모순

우선 주요 모순에 대한 19차 당대회 이전의 논의를 시진핑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주요 모순의 변경이라는 중대하고 공식적인 결정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이론과 입장이 미리 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봤듯이 1981년 「역사 결의」는 1978년 11기 3중 전회 무렵부터 시작된 변화를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전환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이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는 기본 국정은 변하지 않으며,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라는 사회의 주요

모순은 변하지 않으며,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지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른바 ‘3개의 불변(三個沒有變)’이다. 앞의 두 가지는 2007년 17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언급됐었다. 이는 후진타오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따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개념이 확립된 이래 지속되고 있는 기본 전제를 체계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다.

시진핑 총서기 또한 19차 당대회 직전까지 동일한 입장이었다. 2016년 1월 29일의 30차 정치국 집체학습, 같은 해 7월 1일의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대회에서도 ‘3개의 불변’이 그대로 언급되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7a, pp. 11~12). 이러한 점에서 이때까지는 주요 모순 전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입장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모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모순과 관련된 다른 언급은 오히려 19차 당대회와 상반된다. 시진핑은 2016년 5월 16일 중앙 재경 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발전과 분배의 문제를 주요 모순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경제발전이 없다면 분배는 원천이 없는 물이요, 뿌리가 없는 나무일 뿐이다. 질적으로 효율적인 발전을 실현해야만 중등수입 집단이 부단히 확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등수입 집단은 확대될 수 없고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길 현재 빈부 격차가 주요 모순이고, 이 때문에 ‘케이크를 잘 나누는 것이 케이크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분배가 발전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에 대한 당의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 당의 18차 당대회에서 제안하고 준비하여 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갖는 위대한 투쟁을 진행한 것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발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자를 죽여 빈민을 구제하는 식의 재분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7b, p. 41).”

이는 ‘3개의 불변’에 기초한 입장으로 ‘신시대’ 주요 모순의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에 대한 강조와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에 대한 수정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입장의 변화가 최소한 2016년 상반기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이 과연 새로운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이미 ‘발전 방식의 전환(轉變發展方式)’을 선언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내수와 소비가 견인하는 성장으로의 전환, 민생 개선, 지속가능성의 제고 등을 추진했었다(김시중 2013, pp. 120~124). 이러한 내용은 앞서 2003년 ‘과학적 발전관’, 2006년 ‘조화사회(和諧社會)’를 공식화함으로써 오랫동안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또한 성공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은 실제 이에 따라 각종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행해 왔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시작했으며,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中部崛起) 등을 통해 지역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의 정책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재정분야를 보더라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후진타오 정부 시기(2002~2012년), 발전된 동부와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중·서부의 재정 격차가 줄기도 했다(조형진 2015).

3. 19차 당대회 이후의 주요 모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물론, 특히 중국식 사회주의 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주요 모순의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사전적으로 전개된 정세적 판단과 이론적 사고의 귀결이었든, 아니면 사후적으로 형성된 정당성의 확보와 이론의 재구성이었든 간에 그렇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19차 당대회의 내용과 당대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 모순의 전환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나 정세의 중대한 변동은 뚜렷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9차 당대회 이후에 공개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주요 모순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논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모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정당화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요 모순의 전환에 대한 논리와 이론이 적절하게 보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당연히게도 신시대 선언과 주요 모순의 변동이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여 신시대와 주요 모순이 정밀하게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는 더욱 더 자신의 사회주의를 매우 실용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이는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서 보자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논리적 구성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신시대와 주요 모순 전환의 핵심 논리는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로 인해 중국의 사회 생산력이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민의 수요도 물질적 수요에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국가상황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생산력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중국 학계의 주요 모순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리중제(李忠杰)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 역사에 입각하여 19차 당대회의 신시대와 주요 모순의 변동을 해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찬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내적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언술로 보자면, ‘시대(時代)’는 매우 큰 개념이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 평화와 발전의 시대의 구분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요 모순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의미했다. 1981년 「역사 결의」의 주요 모순에 대한 조정과 이에 따른

6) 이러한 간명한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공식적인 대중교육용 저서인 本書編寫組(2018, pp. 65-73)를 참조할 수 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이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시대’는 이 정도까지의 구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요 모순의 조정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질적 변화나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양적 변화이자 정도의 변화이다. 따라서 근본적이거나 전복적인 변화가 아닌 이전의 것과 일맥상통한 변화이며, ‘적절한 조정(適當的調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李忠傑 2017, pp. 174~182). 사실상 19차 당대회의 신시대와 주요 모순의 변동이 ‘시대’와 ‘주요 모순’이 가졌던 과거의 무게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확고한 이론과 논리로 뒷받침되지 못하다보니 19차 당대회 직후, 일부 중국 학자들은 주요 모순의 전환을 시진핑이 추진하는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해석했다(胡鞍鋼 외 2018; 賈康 2017). 이러한 인식은 학계의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2018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는 중국의 경제 운영에서 있어서 주요 모순이 공급측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와 대비하여 총량적 문제(總量性)와 수요측면의 문제(需求側)는 부차 모순으로 규정되었다(高培勇 2019). 즉 총량을 늘려 양적으로 성장하고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부차적이며, 공급의 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이 주요 모순이자 핵심 목표라는 것이다. 중국 사회 전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며 노선, 방침, 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요 모순이 경제정책 수준에서 해석되었다. 변화를 설명할 만큼의 현실과 논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와 ‘주요 모순’ 자체의 위상과 함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1년 11월 19기 6중전회에서 ‘당의 백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關於黨的百年奮鬥重大成就和歷史經驗的決議)’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과시켰다. 1981년과 같이 이번 「역사 결의」도 이미 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모순의 변동을 새로운 역사 결의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상술한 주요 모순의 주요한 변동을 재서술했다. 그러나 19차 당대회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지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는 주요 모순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후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신시대의 주요

모순 전환이 결정의 과정과 절차, 이론의 논리와 내용에서 1957년 8차 당대회, 1981년 「역사 결의」 등 과거의 수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마오쩌둥의 『모순론』에서 강조된 모순의 편재성과 변동성은 중국이 실천적, 정세적 필요에 따라 모순 개념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실제 주요 모순의 변경은 노선의 변화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주요 모순의 변경은 1981년 「역사 결의」에서 보듯이 중국 사회는 물론, 세계와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세심하게 배치되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2017년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전환은 이러한 이론적, 역사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의 시기에 처해 있지만,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시대주제”라는 시진핑 주석의 19차 당대회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에 주요 모순의 변동에서 중요한 배경이었던 국내외 정세의 변화도 명확하지 않다. 주요 모순의 변동을 ‘사회주의 개조’의 종결을 통해 정당화했던 1956년이나 여기에 더해 전쟁과 혁명에서 평화와 발전으로 시대주제가 변경되었다는 인식을 반영했던 1981년 「역사 결의」와 달리 주요 모순의 전환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재한 것이다. 또한 19차 당대회의 새로운 주요 모순은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볼 때, 오랜 고민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주요 모순의 전환을 그 변동성이나 이론의 정합성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수 있다. 마오쩌둥 시기를 통해 확인했듯이 중국에서 모순 개념은 항상 도구적으로 활용되었고, 수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주요 모순은 항상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개혁기 내내 불변했다. 주요 모순은 기본적인 국가 상황과 지위가 변화했다는

인식 속에서 장기적인 고민과 절차를 통해 전환되었다. 하지만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은 명확한 전환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3차 역사 결의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집권의 중요한 요소인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시중. 2013. 「새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 경제: 평가와 전망」.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제18차 당대회의 종합적 분석』, 전성홍(편저). 서강대학교 출판부.
- 딜릭, 아리프(Arif Dirlik). 이현복 역. 2016. 『혁명과 역사: 중국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기원 1919-1937』. 산지니.
- 모택동. 1992. 『모택동선집 1』. 북경: 민족출판사.
- 안치영. 2013. 『덩 샤오핑 시대의 탄생: 중국의 역사 재평가와 개혁』. 창비.
- 안치영. 2018.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보고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동향과 전망』, 102: 144-185.
- 유희복. 2019. 「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중국몽: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 『중국지식네트워크』, 14: 5-47.
- 전성홍. 2018.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조영남(책임편집). 지식공작소.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
- 조영남. 2012. 『용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민음사.
- 조영남. 2016.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개혁과 개방(1976-1982)』. 민음사.
- 조영남. 2018. 「엘리트 정치」.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조영남(책임편집). 지식공작소.
- 조영남. 2020.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민음사.
- 조형진. 2015.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기원: 재정 집중화와 지역 간 균등화의 달성」. 『한국정치연구』, 24집 3호:

141-170.

- 조형진. 2018. 「2018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시진핑 체제 전망」. 『INChinaBrief』, 357.
- 황태연. 2019. 「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21권 제2호: 135.
- 本書編寫組. 2018.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三十講』. 學習出版社.
- 鄧力群. 2012a. 「參與起草《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曆史問題的決議》」. 『以史爲鑒 可知興替: 學習與研究中國共產黨兩個《曆史決議》』, 本書編譯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鄧力群. 2012b. 「問題和回答(六則)」. 『以史爲鑒 可知興替: 學習與研究中國共產黨兩個《曆史決議》』, 本書編譯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馮務中, 郭瑋. 2013. 「黨的八屆三中全會前後社會主要矛盾論斷轉變的原因分析」. 『中國特色社會主義研究』, 第3期: 48-52.
- 高培勇. 2019. 「持續推進供給側結構性改革」. 『人民日報』, (4월 25일)
- 賈康. 2017. 「走進新時代: 從我國社會主要矛盾的轉化看供給側結構性改革」. 『中國財政』, 22期: 4-5.
- 龔育之. 2012. 「在黨的曆史決議的基礎上前進」. 『以史爲鑒 可知興替: 學習與研究中國共產黨兩個《曆史決議》』, 本書編譯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何敬文, 李放. 2014. 「八大前後毛澤東對國內主要矛盾的探索」. 『馬克思主義研究』, 第9期: 24-32.
- 胡鞍鋼, 程文銀, 鄢一龍. 2018. 「中國社會主要矛盾轉化與供給側結構性改革」. 『南京大學學報』, 1期: 5-16.
- 李忠傑. 2017. 『黨章內外的故事』. 中共黨史出版社.
- 劉靖北. 2018. 「黨的十九大報告對馬克思主義的重大理論創新」. 『國家行

- 政學院學報』, no.2: 4-10.
- 劉少奇. 1958.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向第八次全國代表大會第二次會議的工作報告」. 『人民日報』(5월 27일)
- 毛澤東. 2011. 「論新階段: 抗日民族戰爭與抗日民族統一戰線發展的新階段」. 『建黨以來重要文獻選編(1921-1949)第十五冊』. 中央文獻出版社.
- 人民網. 2018. 「工作方法六十條(草案)」. 『領袖人物資料庫』. <http://www.people.com.cn/GB/shizheng/8198/30446/30452/2195977.html> (검색일: 2018년 3월 25일)
- 習近平. 2018. 「關於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決定稿和方案稿的說明」. 『〈中共中央關於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的決定〉〈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輔導讀本』. 人民出版社.
- 中共山西省委黨史研究室. 2016. 『中共中央在延安十三年史(上)』.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02. 『中國共產黨歷史: 第二卷(1949-1978)上冊』. 中共黨史出版社.
- 中共中央宣傳部. 2019.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學習綱要』. 學習出版社·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7a. 『習近平關於社會主義經濟建設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2017b. 『習近平關於社會主義社會建設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 新華網. 2017a. 「建設馬克思主義執政黨的光輝指引: <中國共產黨章程(修正案)>誕生記」.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28/c_1121871054.htm (검색일: 2017년 11월 3일)
- 新華網. 2017b. “面向新時代的政治宣言和行動綱領: 黨的十九大報告誕生記.”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2017-10/28/c_

1121868753.htm (검색일: 2017년 11월 3일).

- Brown, Kerry, and Una Aleksandra Bērziņa-Čerenkova. 2018. "Ideology in the Era of Xi Jinpi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23:3.
- Dirlik, Arif. 1996. "Mao Zedong and "Chinese Marxism"." *Marxism Beyond Marxism*, eds. Saree Makdisi, Cesare Casarino, and Rebecca E. Karl. Routledge.
- Li, Cheng. 2016.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in, Chen. 2019. "Mass Line."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eds. Christian Sorace, Ivan Franceschini, and Nicholas Loube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Miller, Alice. 2017. "Xi Jinping and the Party's "Guiding Ideology"." *China Leadership Monitor*, 54.
- Night, Nick. 1980. "Mao ZeDong's On Contradiction and On Practice: Pre-Liberation Texts." *The China Quarterly*, 84: 641~668.
- Rojas, Carlos. 2019. "Contradiction."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eds. Christian Sorace, Ivan Franceschini, and Nicholas Loube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Schram, Stuart. 1989. *The Thought of Mao Tse-Tu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2008.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arr, John Bryan. 1979. *Continuing the Revolution: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국문요약〉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 국가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중국에서 이데올로기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신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당의 지도사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다. 새로운 시대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는 주요 모순의 전환이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주요 모순의 전환은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면적인 정책 조정을 위한 근거였다.

그러나 19차 당대회의 주요 모순 전환은 이러한 이론적, 역사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국가의 상황과 지위가 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요 모순을 전환해야 하는 논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처럼 장기적인 논쟁과 절차를 통해 전환이 결정되지도 않았다. 결정의 과정과 절차, 이론의 논리와 내용이 과거의 사례들에 미달한다. 주요 모순의 전환은 신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요소인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中文摘要〉

关于中共十九大主要矛盾的评价

曹亨真

中国作为一个社会主义国家,即使是在改革开放以后,意识形态仍然是维持体制稳定的重要一环。习近平上台以后,意识形态的重要性再次提升。中国共产党在2017年召开的“十九大”上宣告中国进入了“新时代”,并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作为党的指导思想。所谓进入“新时代”的理论性根据就是主要矛盾的转换。这种转换在中共党史上是有先例的。马克思主义理论和中共党史中主要矛盾的转换是对社会的根本性、基础性变迁的认识和反映,以及基于此认识和反映所作出的政策调整的基本依据。

然而,中共十九大并没有明确地指出这种转换的理论性和历史性依据究竟是什么。尽管中共十九大也认识到中国的基本国情和国际地位并没有发生显著变化,但是仍然提出主要矛盾已经发生了转变。中共十九大中提出的主要矛盾转换不仅缺乏理论逻辑上的自治,也不像过去的主要矛盾转换一样经历了长期的争论、路线斗争等政治程序。因此,此次主要矛盾转换在理论逻辑上和程序上都没有达到历史上各次主要矛盾转换的水平。主要矛盾的转换仅仅被作为宣告新时代到来的工具来使用。这种缺乏理论支撑和程序支撑的主要矛盾转换可能会对作为维持体制的安定繁荣和长治久安的意识形态领域充分发挥其作用产生消极的影响。

關鍵詞: 主要矛盾, 新时代, 中共十九大,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 투고: 2021년 12월 08일 / ● 심사: 2022년 01월 18일 / ● 게재 확정: 2022년 01월 20일